혜일 스님 취임 일성…"출가자 증가 핵심 목표"

조계종 교육원, 12월 7일 제9대 원장 취임식 개최

"미래세대 소통…출가정신 알릴 것"
시대 맞는 교육 등 '3대 기조' 발표
진우스님 "출가자 확산 범종단 문제"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7일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회가 승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엄격해지고, 승가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는 다양해지고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승가교육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9대 교육원은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삼겠습니다."

제9대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의 취임 일성은 '출가자 증대'였다. 한해 출가 인원이 100명 이하로 감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출가자 증가 종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3대 종무기조를 발표했다. 이날 스님이 밝힌 3대 기조는 △출가자 증가 △전통 계승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학인 교육 △다각화된 배움을 통한 지계 및 수행 풍토 조성 등이다.

특히, 혜일 스님은 미래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출가 정신을 바로 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과 군장병 등, 미래 세대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다"면서 "물질은 넘쳐나지만 정신은 가난해지고 마음은 병들어가는 시대에 출가자의 수행 정진이 시대를 선도하는 진리의 등불이며, 진정한 대자유의 길임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혜일 스님은 "학인 스님들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뉴미디어를 통해 양질의 불교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미·사미니 스님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포교 현장에서 신뢰받는 승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교육원과 포교원, 중앙종무기관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불법 홍포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행하는 승가, 함께하는 승가, 미래를 여는 승가의 길에 교육원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출가자 증가를 위한 노력을 제9대 교육원에 요청했다. "출가자 감소는 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불교계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출가가 새로운 인생의 지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젊은 세대가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출가를 권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승가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인연들의 중심돼 혁신적으로 승가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교육원장 스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변화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제9대 교육원이 열어갈 시대화 교감하며 전법 교화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승가 인재 양성의 미래를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축사에서 "조계종 승가교육의 목적과 이상이 종지종통을 뿌리로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숭고하고 영롱한 수행자는 창출될 것"이라며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수행자를 배출하는 수도원 체재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9대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문화부장, 기획실장, 종책특보단장, 제14·15·17대 중앙종회의원과 백련사, 연화사 주지를 역임하며 종단 입법·행정·포교 전반에서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성남 봉국사 주지로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종관위원장 오심 스님 선출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으로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오심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는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오심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이 선출됐다.

신임 종관위원장 오심 스님은 월하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제14~16대 중앙종회의원, 월봉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불교신문 주간으로 활동 중이다. 신성민 기자

불학연구소장에 덕림 스님 임명

혜일 스님, 임명장 수여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에 덕림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불학연구소장 덕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출가자 수 감소 등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는 승가교육은 더욱 중요해졌다. 불학연구소에서 승가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덕림 스님은 "출가자 감소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불학연구소장 덕림 스님은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0년 마곡사에서 동안거 이래 10안거를 성만하고 중앙승가대와 동 대학원, 동국대와 동 대학원에서 불교학과 불교음악이론을 전공해서 학·석사를 취득했다.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범패에 내재된 수행원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중앙승가대 신임 총장에 월우 스님 선출

승가학원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월우 스님 "학인 수급 등 현안
종단, 동문 스님들과 해결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이 신임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제9대 총장에 월우 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진우)은 12월 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0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월우 스님을 중앙승가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이에 따라 월우 스님은 12월 21일부터 4년간 총장 임기를 수행한다.

이사회 이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승가학원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월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사무처장, 대흥사 주지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맡아왔다. 그 경험과 지혜를 통해 중앙승가대가 활성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40여 년 전에는 학인 수급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우 어려워졌다. 종단, 교수, 교직원, 동문 선후배 스님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중흥의 기초가 승가교육에 있음을 되새기며 중앙승가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월우 스님은 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8년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80년 해인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3년 해인사 승가대학, 1987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제12·13·14·16대 중앙종회의원, 정광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흥사 회주,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나눔의집 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진우 스님 "제주에 국민 명상센터 건립 필요"

8일 오영훈 지사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주도에 국민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제주도는 평화롭고 청정해 마음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된다. 그만큼 지형의 기운이 좋다"며 "제주에 국민들이 평온한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명상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2월 8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어 스님은 "제주에 명상센터가 설치되면 국민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제주 명상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명상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배석했다. 신성민 기자

단독출마 장명 스님 직지사 주지후보 '확정'

중선위, 후보 자격 '이상없음'
산중총회 개최 상관없이 확정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주지후보로 단독 출마한 장명 스님<사진>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1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89차 회의를 열고 제8교구 직지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출마한 장명 스님의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장명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장명 스님은 12월 9일 오후 1시 열린 산중총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직지사 신임 주지후보로 확정됐다. 산중총회법에 따르면 본사 주지후보로 1인이 등록한 경우 산중총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장명 스님은 녹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88년 사미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제14·15·16·17대 중앙종회의원과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연화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재적승 기초수행지원금 신청 안내

범어사 재적 비구 / 비구니 스님들께 매월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는 2023년 1월 15일부터 범어사 재적스님들께 매월 20만원의 '기초수행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범어사 소속 수사찰에 책정된 특별분담금을 기금으로 하여 스님들의 전법과 수행 원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많은 재적스님들의 신청 바랍니다.
본사 소임을 맡은 사부대중은 향후 기금확충에 노력하여 더 많은 혜택이 승가대중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수사찰 특별분담금 지정사찰(가나다순) 마하사(주지 정산) 법륜사(각진) 선암사(원타) 성주사(법안) 운수사(범일) 은하사(혜수) 장안사(무관)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자
기본 자격은 비구 · 비구니계를 수지한 범어사 재적승으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

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종단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나. 사찰(공찰, 사설, 포교소, 산내암자)의 주지(대표, 감원)이 아닌 스님
다. 사찰, 종단, 기관 및 시설의 소임자로 월보시 백만원 이하로 받는 스님

■지 급 시 기 : 2023년 1월부터(지급일 : 매월 15일)
■지 급 액 : 매월 20만원(신청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지급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차 신청기간 : 2022년 12월 15일 ~ 2023년 1월 9일까지(1차 신청 이후 상시 신청가능)
■신 청 서 류 : 가. 기초수행지원금 신청서(범어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나. 통장사본(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통장 면 / 신청자 명의)
■문 의 / 접 수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250 범어사 종무소
TEL 051-508-3122 / FAX 051-508-3229
Email : beomeosa@daum.net

2022년 12월 15일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